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일단 (제 1~2 단) 초빙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의 일환으로써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차세대교육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교육현장 및 평화교육 현장시찰'이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일본 교육관계자들과의 교류,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한국의 교육 관계자 등 52 명
 초빙 (오프라인) 한국의 교육 관계자 등 52 명

【방문지】 사전학습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52 명
 초빙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히로시마현 (広島県), 효고현 (兵庫県),
 오사카부 (大阪府) 52 명

【일정】

■ 사전학습 (온라인) :

5 월 11 일 (목)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오프라인) :

6 월 4 일 (일)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6 월 5 일 (월) 【강의】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초중등 교육의 개요'

【예방】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 고 이수현씨 추도·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新大久保) 필드워크

6 월 6 일 (화) 【학교방문·교류】(제 1 단)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 (東京都江東区立八名川小学校), (제 2 단) 도쿄도립 고이시카와중등교육학교 (東京都立小石川中等教育学校), 히로시마현으로 이동

6 월 7 일 (수) 【예방】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사무국 배움의 변혁 추진부장 겸 교육센터 소장

【강의】 히로시마현청 '국제교류원으로부터 본 히로시마의 매력'

【시찰】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강의】 피폭 체험 강연

【시찰】 평화기념공원,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원폭돔

6 월 8 일 (목) 【학교방문·교류】(제 1 단)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 (広島県広島市立袋町小学校), 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 (学校法人呉武田学園武田高等学校)

【기업방문·강의】 주고쿠 (中国) 신문 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 '원폭의 기억을 계승하는 활동에 대해서'

6월 9일 (금) 효고현으로 이동, 【시찰】 한신아와지대진재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
 오사카부로 이동, 성과보고회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6월 10일 (토) 간사이 국제공항 출국

2. 프로그램 기록사진

	
<p>2023년 6월 5일 【강의】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 초·중등 교육의 개요'</p>	<p>2023년 6월 6일 【학교방문·교류】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p>
	
<p>2023년 6월 7일 【예방】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사무국 배움의 변혁 추진부장 겸 교육센터 소장</p>	<p>2023년 6월 7일 【시찰】 원폭돔</p>
	
<p>2023년 6월 8일 【학교방문·교류】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p>	<p>2023년 6월 8일 【학교방문·교류】 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p>

<p>2023년 6월 8일 【기업방문·강의】 주교쿠 신문 히로시마평화미디어센터</p>	<p>2023년 6월 9일 【시찰】 한신아와지대진재기념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p>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교원

야나가와초등학교 선생님들과의 교류와 후쿠로마치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내 평화자료관을 직접 안내해 준 것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서는 교육위원회 분들도 학교방문에 동행해 주셔서 학교 차원이 아니라 보다 매크로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일본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국 교원

일본 초등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교원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또한,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에서는) 재해를 극복할 때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교원

교원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보고 교류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뿐 어느 나라나 젊은이들의 관심과 고민은 동일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다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4. 일본 측 소감 (발췌)

◆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

히로시마현에서는 현장주의를 중요시하여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히로시마에서 배우서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히로시마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되는, 일본제일의 교육현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로시마현의 교육현장을 보고 느낀 점,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의 교육활동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쿄도 고토구립 야나가와초등학교

한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교원에게도 배움이 많은 의미 있는 교류

였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똑같은 교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도쿄도립 고이시카와중등교육학교 학생

한국분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한국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과 학교의 모습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는데 한글의 재미와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립 후쿠로마치초등학교

‘재미있었어요.’ 후쿠로마치초등학교 평화자료관 안내를 마친 아이들의 첫마디였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도 했다’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본교의 평화교육을 거듭 쌓아온 성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나라’의 교류가 되어있고 밝은 미래를 느꼈습니다.

◆ 학교법인 구레 다케다 가쿠엔 다케다 고등학교

학교개요, SDGs의 대처, 평화학의 설명 및 평화학 모의수업을 참관하신 후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에 대해 모두들 크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교입시가 없고 공립외국어학교 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일한 양국의 교원이 서로 각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p>いいね! : 他</p> <p>기다렸던 야나가와초등학교 방문. 수업참관 및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다. 일본어를 하는 것에 신기해 하던 고학년, 외국인에게 일본어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재질재질 말하는 1학년 친구들 모두 어찌나 귀엽던지. ♪ 궁극하던 하이쿠 수업도 참관했고 특히 마을결합 교육이 지역과 힘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부러웠다. 서울에 돌아가서 오늘 보고 배운 것들 많이 활용해야지. #JENESYS #JKCF #NIIED</p>	 <p>일본 코이시카와 중등학교 방문했다. 와 진짜 한국 학교랑 학생들이랑 많이 다르다. 일단 학원을 가는 학생이 거의 없고, 동아리 활동이 정말 활성화 되어 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라면 일본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공부일까. 이래서 한국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달리는거 아닐까. 수업시간에 시험에 만나온다면 틀러두고 학원 속에 꺼내서 하는 학생들이 생겼겠다.</p> <p>또 일본 신문(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 니혼케이자이 등) 신문을 직접 활용해서 진행하는 nie수업도 활발했다.</p> <p>일본 급식은 영양사(영양교사)가 없어서 중학생은 외부 업체에서 도시락을 공급하며, 고등학생은 임자가 직접 싸 줘야 한다. 한국 급식은 무료에다가 유기농으로 만들어 최고급 재료로 구성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너무 부럽다고 했다. 근데 우리에겐 맛있는 공짜라고 쉽게 생각해서인지 밥 안 먹는 애들 진짜 많은데...</p> <p>교복은 안 입는 학생이 없다. 명찰도 다 단정히 달고 있다. 우리 애들은 교복 잘 안 입고 이상하게 변형해서 입는데, 여기에서는 수학여행 갈 때도 무조건 교복을 입어야 한다.</p>
<p>2023년 6월 6일 (Instagram)</p> <p>기다렸던 야나가와초등학교 방문. (중략) 하이쿠 수업을 견학했습니다. 지역과의 협업에 의해 커뮤니티스쿨이 원활히 추진되어 있어 부러웠습니다. 귀국 후에는 오늘 보고 배운 것</p>	<p>2023년 6월 6일 (Instagram)</p> <p>고이시카와중등교육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p>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다. (중략) 신문을 활용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교육도 활발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Instagram)
 방일 4 일째의 히로시마 일정.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를 예방 후 ‘히로시마의 매력에 대하여’라는 테마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히로시마 현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도 있고 또 평화를 위한 히로시마현의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 (Instagram)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원폭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반시민과 조선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2023.6.8.목 #JENESYS #NIED #KCF
 사립 히로시마 다케다 중고등학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 토끼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지역에 용기있게 방문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독가스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반성하는 고교생, 추고쿠신문의 히로시마 피폭자 발굴과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감동했다. 카키(굴) 재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꽃이를 히로시마 고교생의 견의로 침묵대로 바꾸기로 결정한 기업. 지구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히로시마의 미래가 밝다.



「核兵器使用、二度と駄目」 韓国の教員団が広島訪問
 2023年06月08日 17時48分

2023년 6월 8일 (Instagram)
 다케다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략) 굴 양식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꽃이를 대나무로 대체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와 인류를 소중히 생각하는 히로시마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 (시사통신사)
 ““핵무기사용, 두번 다시 안돼” 한국의 교원단이 히로시마 방문’ 평화기념자료관 등의 시찰과 히로시마 시내의 초등학교 방문에 대해 언급하고, 활발한 학교교류 등을 통해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도쿄도, 히로시마현, 효고현, 오사카부)

<p>【방일중의 배움】 한국의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중요도가 저하되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교육 (청소, 정리정돈,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힘 등) 에 대해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초등교육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밀한 점,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배움을 생활에 직결시켜 실천하는 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p> <p>교류를 통해 배운 것들과 일본 지진방재교육에 대해 주위의 교원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교실 등의 출입구를 열고 ‘오하시모·오카시모 (주 : 피난시의 표어)’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진 피난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p> <p>【액션 플랜】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일본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여 한국의 학교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만들기에 착수함과 동시에, 8월에는 일본 교원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한 양국의 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국의 학교간 교류수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싶습니다.</p>	<p>【방일중의 배움】 학교방문을 통해, 일한 양국 중학교의 문화적인 차이와 운영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일본의 학교운영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보다도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공감했습니다. 재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이 많이 정비되어 있고 안전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SDGs 교육과 평화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양국의 학교생활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액션플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상호이해를 심화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학술·민간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그 대표적인 교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이해서는 일본 어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간 학교교류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싶습니다.</p> <p>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SDGs 교육에 힌트를 얻어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SDGs에 대해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p>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